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일본, '의약품산업비전 2021' 발표



CONTENTS

01

포커스

- 일본, '의약품산업비전 2021' 발표 1
-

02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가상의료의 확대에 따른 의료비 환급 문제 직면 4
 - 미국 원격의료, 팬데믹 기간과 이후의 전망 4
 - 일본, 정밀의료에 대한 하이브리드 접근방식을 추진 5
 - AI, 글로벌 제약산업에서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될 전망 5
 - 보건의료,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가 가속화될 전망 6
 - 예방의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요인을 극복 6
-

03

4대 보건산업

- 미국 FDA, 주목받는 5개 의약품 4/4분기 승인 검토예정 7
 - 미국 GAO,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식이요법 정책방안 제시 7
 - 영국, 사회 불평등 해소와 보건체계 수준 향상을 위한 기구 설치 8
 - 독일, COVID-19 팬데믹이 보건경제에 미친 영향 8
 - 유럽 ECDC, HIV와 AIDS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간 9
 - 일본, COVID-19 이후 다각적인 BCP 수립 필요성에 직면 9
 - 인도 Apollo 병원, 로봇지원 Hugo를 이용한 수술 성공 10
 - 아시아-태평양, 화장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 10
-



일본, '의약품산업비전 2021' 발표

일본 후생노동성은 △'13년 '의약품산업비전 2013'을 발표 △'15년 책정한 '의약품산업강화 종합전략'을 '17년 개정 △'19년 '일본신약개발력강화플랜'을 발표했지만, 최근 의약품 산업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산업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확인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본의 의료품질을 유지·향상시키고 경제발전을 양립할 수 있는 의약품산업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8년 만에 '의약품산업비전 2021'을 발표

[1] 혁신적인 신약개발과 품질 확보·안정적인 공급 지향

■ (비전)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해 국민을 건강위기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소비활동, 노동참여 등 경제활동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의약품 산업은 안정된 조세부담 능력과 고용면에서 일본경제에 공헌

- 이러한 배경에서 '의약품산업비전 2021'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지키고 일본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에서 10년 후를 기간으로 잡고 다음 2가지 사항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의약품 산업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
- ①세계 유수의 신약개발 선진국으로 혁신적인 신약개발을 통해 일본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의학연구 및 산업기술력 향상을 통해 산업·경제발전에 기여 ②의약품 품질 확보·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차세대로 인계
-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려면 의약품의 연구·개발·제조·유통을 민간 기업이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해 투자에 맞는 적절한 대가의 회수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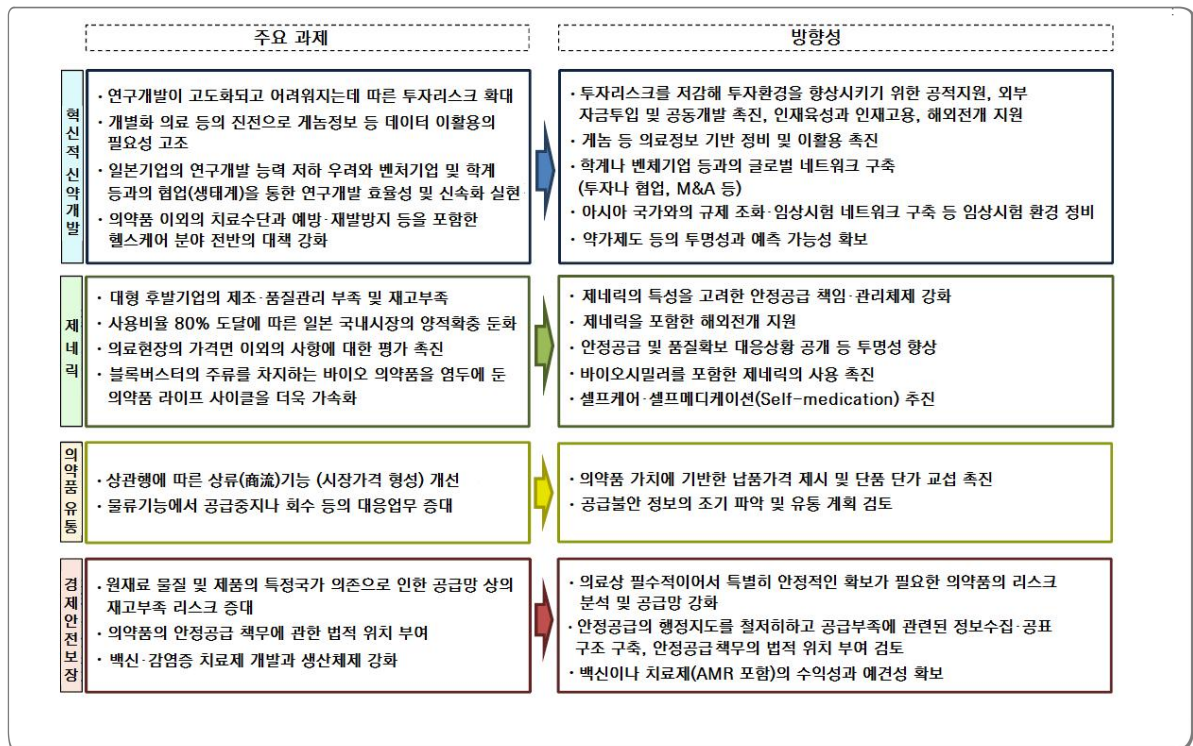
■ (방향성) 이전 비전 책정 후 8년이 경과하면서 유전자 기술이나 데이터를 이용한 신약개발, 제네릭 침투, 의약품 시장·공급망의 글로벌화, 약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백신·치료제에 대한 관심 고조 등 의약품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

- 이를 고려해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신약개발 △제네릭 △의약품 유통 등 3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안전보장'이란 시점을 추가해 산업정책을 전개
- △(혁신적인 신약개발) 학계·벤처의 시즈(シーズ)를 적극 도입해 미충족 수요(Unmet Medical Needs) 충족 △(제네릭) 의료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해 품질확보와 안정적인 공급 실현 △(의약품 유통)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안정공급과 시장형성 실현

* 시즈(seeds, シーズ)란 일본에서 연구개발이나 신규사업 창출을 추진시키는데 필요한 발명(기술)이나 능력, 인재, 설비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술시즈(技術シーズ)', '연구시즈(研究シーズ)' 등의 표현으로 사용

- 이러한 산업정책을 평상시는 물론 긴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후생노동성 내의 의약품 관련 조직 체제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사령탑 기능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후생노동성과 관계부처가 계속 논의

□의약품 산업 정책의 주요 테마별 과제 및 방향성□



[2] 의약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정책

■ (단계별 시책-연구개발) 앞서 확인한 주요 테마별 과제와 방향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부터 ‘약사승인·보험수재’ ‘제조’ ‘유통’ ‘국제전개’까지 의약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정책을 정리

- (중점영역 설정 및 지원) 의약품 고도화 등을 감안한 중점지원 설정, 백신·치료제 등 정책적 우선도가 높은 영역이나 분야는 예를 들어 새로운 바이러스 발생 시 백신을 비롯한 감염증 치료제나 난치병·희귀질환 치료제는 입구인 연구 단계부터 출구인 시장 출시까지 지원
- (오픈이노베이션 커뮤니티 구축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환경 정비) 신약개발 기술의 고도화로 학계의 시즈(シーズ)연구나 벤처기업이 원천기술을 가진 의약품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국내 연구개발력 유지 및 해외벤처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커뮤니티를 정비
 - * 오픈이노베이션 커뮤니티란 단순히 산·관·학 등의 물리적 거리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위 생태계를 형성해 해외의 참여까지 고려해 유기적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의미
- (인재를 통한 연구개발력 강화) 신약개발에서 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높아지며 빅데이터 취급, 특히 연구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 취급을 하는 전문으로 하는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관학 협력을 통한 인재육성과 고용을 위해 노력

- (리스크 머니 공급·매칭 지원) 실용화 개발 지원을 위해 중점분야에 정부의 자금제공·민간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놓고 국내외에서 원활하게 접근하고 매칭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주식공개를 통한 자금조달, 신속한 매각 등 원활한 출구전략 실현
- (연구개발 데이터 기반 정비) ‘전계놈해석 실행계획’ 추진 등 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표준화 추진, 의료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의 작성·보호 및 이용·활용 법제도 검토, 각 데이터 기반의 유용성 향상, AI를 통한 신약후보물질 선정 최적화 지원, 고액연구설비 공용화 추진

■ (약사승인·보험적용) 등 단계에서 추진할 시책은 임상시험 환경 정비, 긴급 상황 시 약사승인 과정의 신속화 및 기준정비, 제네릭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책임강화 등

-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 확립) 중점영역을 설정하고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일관되게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치료기법(Modality)을 연구·개발·승인할 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되는 규제과학을 조기에 확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연구개발에 유효
- (임상시험 환경 정비) 피험자나 국민이 알기 쉽게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해 임상시험 참여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임상연구나 의사가 주도하는 임상시험 핵심병원 등의 거점을 정비하는 한편 아시아 시장에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아시아 공동 임상시험 추진
- (긴급 상황 시 약사승인 과정의 신속화 및 기준정비) 국제적인 합의에 따른 긴급 시 프레임 프로토콜 작성, 승인 심사 시 해외의 임상시험 자료 활용방법이나 긴급사태에서 특별하게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 마련, 백신의 국가검증 신속화·간소화 등을 검토
- (약가제도의 투명성·예견 가능성 확보) 원가계산 방식의 투명성 향상, 초기단계부터 후생노동성과의 상담, 백신 등의 정기접종 과정 효율화나 국가의 매입 등의 인센티브 도입 검토

■ (제조·유통·국제전개·기타) 등 단계는 제네릭의 제조관리체제 감시 및 투명성 향상, 공급불안 정보의 조기파악 및 대응책 마련, 긴급 상황 발생 시 협력을 고려한 대비, 시장확대 지역으로의 사업전개 지원 등을 추진

- (안보관점에서 강인한 공급망 구축) 의료상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의약품 가운데 우선도가 높은 제품은 기업에 재고 확대, 복수 공급원 구축을 요청하고 국내 제조지원·비축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약가상의 대응, 인센티브 등을 검토
- (바이오 의약품·재생의료 제품의 제조거점 정비) 고품질 생산체제 구축, 산·관·학 협력을 통한 바이오인재 육성, 백신제조 설비의 개보수 지원이나 이중사용(dual use) 설비 등 유연한 제조거점 설비 구축, 국제전개나 국제표준을 염두에 둔 배지(陪地)·자재 등의 국내생산개발 강화
- (바이어시밀러를 포함한 제네릭 사용촉진) 제네릭은 의료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어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어시밀러가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유효성·안정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홍보

[厚生労働省, 2021.09.15.; 日刊工業新聞, 2021.09.25.]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가상의료의 확대에 따른 의료비 환급 문제 직면

■ 미국은 만성통증에 대해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하여 치료하려는 의료회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VR은 헬스케어 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의료비 환급(reimbursement) 부족 문제가 VR의 광범위한 채택을 방해

- 미국 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대(UCSF)와 협력업체 AppliedVR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VR은 효과적인 오피오이드(opioid-sparing) 통증관리 치료법이 될 수 있지만, VR 채택을 위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로서 VR 기술 사용에 대한 의료비 환급 부족을 언급

* AppliedVR의 플랫폼은 전 세계의 헬스시스템 240개 이상에서 30,000명 이상의 환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EaseVRx 솔루션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혁신적인 의료기기 지정을 획득

- 만성통증은 미국에서 약 1억 명에 달하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관리 기술은 만성 통증 치료의 건강 형평성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약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는 환자가 사용 비용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

[Fierce Healthcare, 2021.10.03.; Med City News, 2021.08.26.]

미국 원격의료, 팬데믹 기간과 이후의 전망

■ 미국 원격의료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인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며, 현재 미국 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를 영구적으로 법제화하여 원격의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COVID-19 이전에 미국 원격의료는 약 100개의 서비스 지역,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하였으나 '20년 초, 메디케어및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응급실(ER) 방문, 작업·물리 치료(OT/PT) 등 140개의 서비스를 지역에 상관없이 추가하여 메디케어 보장을 확대
- 이러한 규제 완화에 따른 원격의료 확대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미국 의원들은 원격의료의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 평가를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HHS) 산하 감사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은 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원격의료 정책과 기술을 평가
- 미국 행정부도 원격医료를 위한 보건의료 자산 확보와 자원 투입 확대를 위해 원격의료 관련 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자금을 지원

[National Law Review, 2021.09.23.; Healthcare Finance, 2021.08.18.]

일본, 정밀의료에 대한 하이브리드 접근방식을 추진

■ 일본에서는 고도로 다양화되고 있는 맞춤형 정밀의료의 현실화됨에 따라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인 하이브리드 접근방식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제공자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수단 한가지로는 불가능했을 개인의 요구와 사회적 문제에 대응

- 일본4차산업혁명센터가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계를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성공사례들은 환자와 의사, 또는 노인과 간병인 사이의 실제 접촉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사용했으며, 데이터와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완
- 일본 최대 제약회사인 다케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社は 시범 프로젝트에서 웨어러블 기기와 원격의료를 사용하여 파킨슨병 환자를 모니터링한 결과 질병관리 및 병원 방문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
- 글로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즈포스(Salesforce)社は 디지털 환자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운영 효율성과 환자 참여를 개선
- 일본 보험회사인 솜포홀딩스(SOMPO Holdings)社は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현재 간호분야에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World Economic Forum, 2021.09.27.]

AI, 글로벌 제약산업에서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될 전망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Business Research Company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 시장에서 인공지능(AI)은 '15년 이후 연평균 31.8%의 증가하여 '20년에 6억 9,930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25년 28억 9,550만 달러, '30년 91억 4,2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움직임은 보건의료 시장 자체의 확대와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정부의 정책 등에 기인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료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기인
- 특히 COVID-19 팬데믹으로 의료진들의 밀접한 진료 행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초의 복약 지시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등을 검토하는데 AI가 사용되는 등 AI관련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추세
- 제약 시장에서 AI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건 의료 분야 IT 인프라가 구형 시스템이라 첨단 AI 기술과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

[Express Pharma, 2021.09.30.; EIN Presswire, 2021.09.13.]

보건의료,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가 가속화될 전망

■ COVID-19 팬데믹 상황은 의료보건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으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자통신 기술 △차세대 외과수술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을 가속화

-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이미 피트니스나 운동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미래의 헬스케어 서비스 전달 과정을 변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
- 전자통신 기술은 웨어러블 기술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의료 데이터 수집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환자의 건강 데이터는 빅데이터로 축적되어 환자가 소속된 집단의 특성 등을 규명하는데 기여
- 첨단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로봇공학이 결합된 차세대 외과수술 시스템은 환자 개인 맞춤형 수술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수술에 따른 예후 결과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

[Healthcare, 2021.10.02.; Healthcare IT News, 2021.09.30.]

예방의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요인을 극복

■ 일본 미쓰비시연구소(三菱総合研究所)는 조기에 질병을 예방해 의료비를 낮추는데 기여하는 예방의료 기술이 주목받고 있지만 예방의료 지속을 가로막는 3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이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예방医료를 가로막는 벽과 기술을 통한 해결책□

	예방医료를 가로막는 벽	해결 포인트	구체적인 기술
1	자신에게 맞는 목표 설정이나 대응 방법을 모른다 ↓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자신의 신체 데이터 등을 근거로 개별화된 목표나 대응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 • 비침습으로 신체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 • AI를 통한 분석·학습·제안 등
2	예방의료에 나섰지만 함께 할 친구가 없다 ↓ 재미가 없다, 지겹다, 싫증난다	친구들과 함께 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감이나 연대감을 갖게 만들어준다	• VR(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 • SNS를 이용한 채팅 기능 등
3	효과가 있는지 실감하기 어렵다 ↓ 정말로 예방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체 상태를 측정·평가할 수 있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 • 비침습으로 신체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 등

[三菱総合研究所, 2021.10.01.; Newsweek Japan, 2021.09.28.]



4대 보건산업

미국 FDA, 주목받는 5개 의약품 4/4분기 승인 검토예정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1년 4/4분기에 미국 화이자(Pfizer)사와 독일 바이오엔테크(BioNTech)사가 공동개발한 5~11세 어린이용 COVID-19(coronavirus vaccine for children) 등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약 5종을 승인 검토할 예정

- FDA는 J&J과 레전드바이오텍(Legend Biotech)사가 개발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실타셀(cilta cell)'과 모더나(Moderna)사와 J&J사의 COVID-19 백신 부스터(vaccine boosters)를 승인 검토
 - * 실타셀은 암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인 'B세포 성숙화 항원(B cell maturation antigen, BCMA)'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종류의 치료법으로 '21년 초에 브리스톨마이어스브뤼브(Bristol Myers Squibb, BMS)사와 블루버드바이오(Bluebird Bio)사가 개발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아벡마(Abecma)'가 최초로 승인되어 출시
- 또한 인트라셀룰라(Intra-Cellular Therapies)사가 개발한 조울증(bipolar depression) 치료제인 루마테페론(lumateperone)과 바이오마린(BioMarin)사가 개발한 왜소증(achondroplasia) 치료제 '보소리타이드(vosoritide)'도 4/4분기 시장에서 주목받는 제품

[Biopharma Dive, 2021.10.01.; Pfizer, 2021.09.28.]

미국 GAO,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식이요법 정책방안 제시

■ 미국 회계감사국(GAO)은 '18년 기준 미국인의 사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심장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식이요법이며, 이러한 식이요법의 확산을 위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현재 미국은 성인 인구의 42%가 심각한 비만 상태에 있으며, 연간 150만명에 달하는 연간 사망 인원 중에서 심혈관 질환이나 암,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만성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전체 3,836억 달러의 54%에 해당
- GAO에 따르면, 현재 이러한 만성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식이요법의 확산에 200여개의 연방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21개 부처와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
- GAO는 정부 차원의 식이요법 확산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범부처 그룹의 수립과 같은 기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성인 대상 뿐 아니라 영유아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식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통합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

[GAO, 2021.09.16.]

영국, 사회 불평등 해소와 보건체계 수준 향상을 위한 기구 설치

■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는 영국 시민들의 수명 연장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증진및불균형개선사무국(Office for Health Improvement and Disparities, OHID)'을 발족

- 영국정부에 의해 새롭게 설치된 기구(OHID)는 지역별로 평균 기대수명이 10년이나 차이가 나타나는 영국의 상황을 개선하고 보건 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설립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의 남성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지역에 비해 평균 기대수명이 10년, 여성은 7년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율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만율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8% 높은 것으로 추정
- OHID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정부, 의료보험과 다양한 사회단체들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공공 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권고, 분석 결과 및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

[GOV.UK, 2021.10.01.]

독일, COVID-19 팬데믹이 보건경제에 미친 영향

■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의 의뢰를 받아 WifOR 연구소가 COVID-19 팬데믹이 독일 보건경제에 미친 영향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 COVID-19 팬데믹은 '09년 금융위기와 달리 보건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여러 측면에 영향을 행사하여, 특정 의료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백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며 중환자 치료는 한계에 도달
- '20년 총부가가치에서 보건경제의 기여분은 약 3,645억 유로로, 팬데믹으로 인해 전년도 수치(3,787억 유로)보다 3.7% 감소하였으나 총부가가치의 지분은 단 0.1%만이 감소하여 경제 전체에 대한 비중은 유지
- 보건경제에 고용된 인구는 약 740만 명이며 전년도보다 10만 명 정도 감소하였으나 노동 시장 지분은 16.5%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의료 서비스 부문은 '20년 총부가가치에서 53.9%를 창출하였으나, 부가가치는 1.4%, 취업자는 0.6% 감소하였고, 의료 산업 부문은 보건경제에서 가장 하락하였으며, 부가가치는 약 752억 유로로 전년 대비 75억 유로가 감소하며 보건경제 내 지분은 21.8%에서 20.6%로 후퇴

[BMW, 2021.09.01.; Bundesregierung. 2021.08.31.]

유럽 ECDC, HIV와 AIDS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간

■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역사무국이 공동으로 '07년부터 WHO 유럽지역과 EU/EEA 지역에서 발생한 HIV와 AIDS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 HIV 전염은 예방이 가능하지만, 유럽 전역에서 전염은 지속되고 있는데, '19년 기준으로 신규 감염자는 13만 6,449명, 이 중 EU 회원국 시민은 2만 4,80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인구 10만명당 15.6명이 신규 감염된 것으로 분석
- HIV의 확산세는 지난 10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동유럽의 감염률이 10만명당 41.7명으로 가장 높으며, 서유럽과 EU 회원국 지역 5.7명, 5.4명, 중부유럽 3.4명 순

[Publication Office of the EU, 2021.09.22.]

일본, COVID-19 이후 다각적인 BCP 수립 필요성에 직면

■ 일본 생명과학 업계는 이전에도 재난 발생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인 '사업지속계획(BCP)'을 꾸준히 정비했지만 COVID-19 확산은 기업의 예상을 뛰어넘는 리스크였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

-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 생명과학 기업은 제품을 통해 질병 치료, 생명유지,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BCP 정비를 포함한 사업지속관리(BCM) 체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이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
- 생명과학 기업의 역할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필요한 장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대규모 재해 등 긴급사태 발생 시 BCP를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복구해야 할 제품을 특정하는 것이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
- 이들 제품 선정에서는 이익이나 사업전략상 중요성 외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대체품이 없거나 공급이 중단되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제품, 제네릭이 없는 약품 등을 우선순위에 배치
- 공급망 파악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제약회사는 자사공장 외에도 원료나 자재 공급원, 원약(原藥) 제조처, 위탁생산업체(CMO), 물류창고, 의약품 도매업자 가운데 하나라도 사업이 중단되면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하거나 의료기관에 약품 전달이 불가능
- 따라서 자사 단독 대책으로는 불충분하며 제약회사는 원료조달부터 제조, 유통·판매까지 모든 공정을 놓고 각 단계에서 어떠한 사업 중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재고 확대, 건물이나 설비 보강, 사업자와의 계약 재검토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

[KPMG, 2021.09.24.; Pwc Japan, 2020.04.21.]

인도 Apollo 병원, 로봇지원 Hugo를 이용한 수술 성공

■ 외과수술용 로봇기업 글로벌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스(Medtronic)와 인도 첸나이에 소재한 아폴로(Apollo) 병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로봇지원 외과 수술 시스템인 Hugo를 이용한 수술에 성공

- 최소침습 외과수술의 한 형태인 로봇지원수술(robotic-assisted surgery, RAS)은 수술 이후의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병원 입원기간을 줄이는 한편,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속도를 높이고, 수술에 기인하는 흉터도 최소화하는 다양한 장점을 보유
- 기존의 RAS는 엄청난 비용과 사용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많은 병원에 도입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수술에 성공한 Medtronic의 Hugo RAS 시스템은 모듈화된, 다양한 부위에 수술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
- 특히 다관절 시스템과 3D 영상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수술 장면 동영상 캡처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었으므로 향후 수술 팀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

[CISION, 2021.09.27.; Healthcare IT News, 2021.10.01.]

아시아-태평양, 화장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자상거래와 제품라인업 결합 △로봇공학 적용 △오프라인+온라인(O+O) 모델 △휴대용 미용기기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화장품 업계의 디지털 전환 및 첨단기술과의 접목이 가속화

- 한국의 뷰티 콘텐츠 플랫폼 기업인 파우더룸(PowderRoom)社は 전자상거래와 제품 라인업을 결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16년 창업한 한국의 릴리커버(Lillycover)社は 단순한 피부 관리를 넘어서서 두피 관리와 색조 화장 분야에 특화된 로봇 공학을 적용
- 글로벌 건강 및 뷰티 전문 소매업체인 왓슨(Watson)社は 기존의 서드파티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고객들에게 '독특하고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오프라인+온라인(O+O)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기로 결정
- 전 세계적으로 2천만대가 팔린 안면 클렌징 및 마사지 기구인 Luna로 유명한 스웨덴 기반의 뷰티 부문 첨단 기술 기업 포레오(Foreo)社は 미래의 뷰티 디바이스로, 전문적인 장비와 같은 성능을 가진 휴대용 미용기기를 출시
- 일본의 화장품 기업 코세(Kosé)社は 글로벌 럭셔리 뷰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기로 결정

[Cosmetics design- asia, 2021.09.14.; the Strategist, 2021.09.14.]